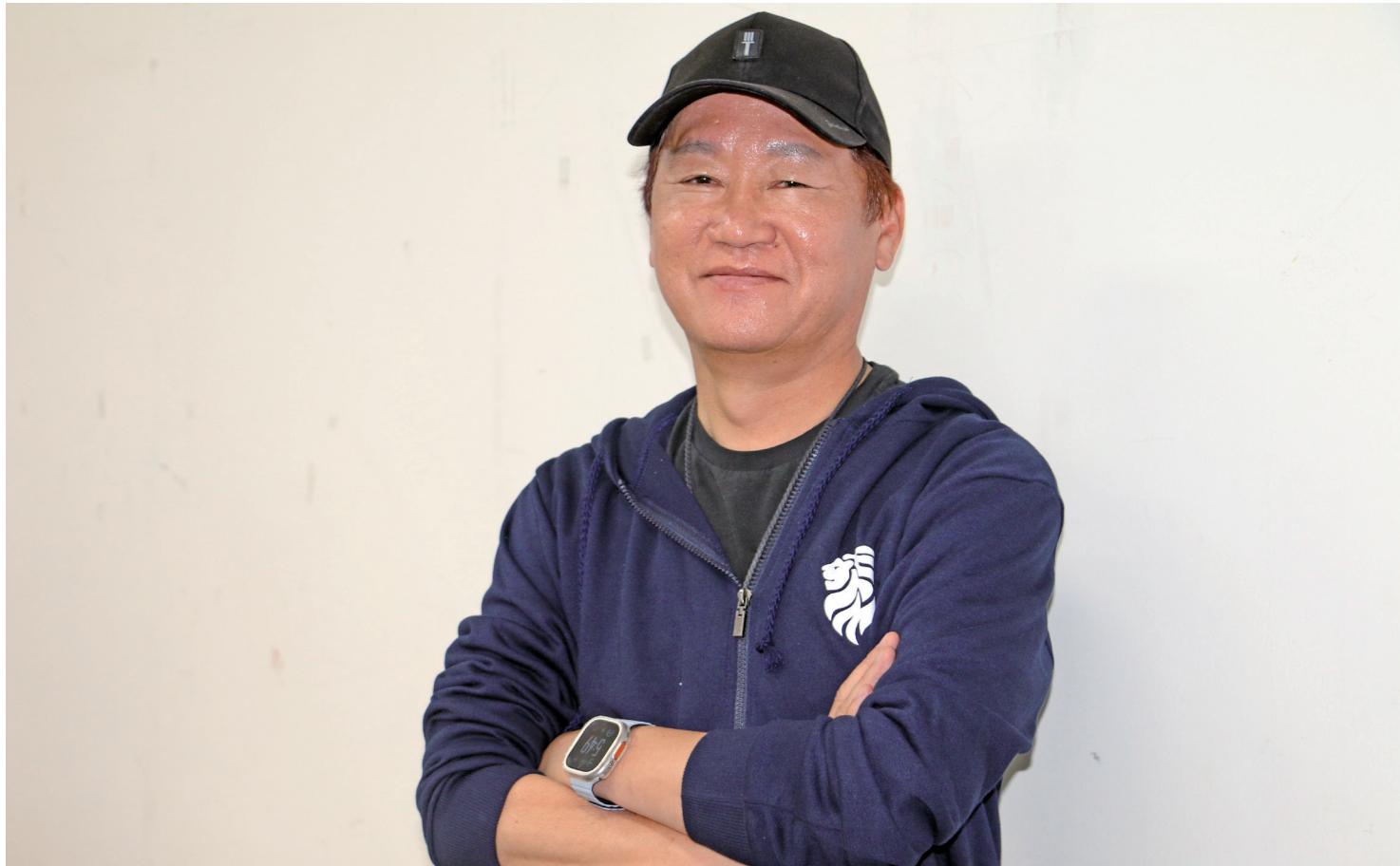


6 사람



우리신문은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주제로 강연을 맡아 지난 6월 5일 국제캠퍼스에 방문한 원 동문을 만났다.

(사진=김동희 기자)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천 만 영화 세 편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영화제작자 원동연
(신문방송학 1983) 동문

청년들은 '진로'에 매몰되어 자신을 괴롭히곤 한다. 때로는 하나의 진로만 바라본 채 현실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국내 최초로 천만 영화 세 편을 제작하는 등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한 원동연(신문방송학 1983) 동문에게 진로는 '꿈'을 위한 발판일 뿐이다. 꿈 없는 대학생에서 자타공인 '영화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꽃 피울 수 있는 계절을 기다렸다'는 원 동문이 현재 청년들에게 건넬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 우리신문은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주제로 강연을 맡아 지난 6월 5일 국제캠퍼스에 방문한 원 동문을 만났다.

원 동문은 보통 영화계 종사자와는 다른 경로를 밟았다. 흔히들 말하는 '영화나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소년'은 아니었다. 이는 진로의 초입인 학과 선정에서부터 두드러진다.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지만, 영화나 미디어에 종사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살았고, 공부를 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낯설고, 그나마 관심이 가는 신문방송학과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던 원 동문에게 진로 계획은 '남 이야기'였다. 명확한 꿈이 없었고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기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 일을 시작했다. 졸업한 후 수상 경력을 살려 광고 회사에서 시작하게 된 조감독 일과 우연히 맡게 된 골재 회사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우연히 마주한 잠재력,
영화 제작자로의 변신**

물론 그런 삶이 원 동문이 원하던 바는 아니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저도 명확히 몰랐지만 그저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행복하지도 않은 삶이 지속됐죠.” 그러나 어느 날 별안간 원 동문의 마음에 ‘글을 쓰고 싶다’는 물결이 일었다. 일기도 쓰지 않는 원 동문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곧바로 이를 실천에 옮겼다. 광고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도움이 됐다. “영상을 만드는 기본 체제를 알고 있으니 이에 기반해 영화 시나리오를 썼죠. 그런데 그게 곧바로 영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1995년에 개봉한 <돈을 갖고 튀어라>다.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은 시나리오를 잘 써낼 수 있다는 사실은 원 동문을 신나게 했다. 하지만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일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자 밤에 제가 쓴 글을 볼 때는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 다시 그 글을 보면 못 봐주겠다는 생각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어느 때부터 글쓰기가 고통스러워졌죠.” 그렇지만 원 동문은 좌절하지 않았다. “제가 괴로워지는 일은 피하고 싶었기에 글을 쓰는 건 이제 어려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작품을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화 제작자가 되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 ‘제작’이라는 다른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한 2001년 36살, 원 동문은 동료 1명과 함께 제작사 ‘제네시스 픽처스’를 설립했다.

하지만 제작자로서의 삶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작가로서 각본을 쓸 때는 ‘각본’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제작자는 아니었다. 영화의 원작이 되는 작품의 판권을 확보하고, 감독과 작가를 선정하는 일, 더불어 작품의 ‘영화화’를 위해 영화를 기획하고 인물을 캐스팅하는 역할까지 영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전

체가 오롯이 원 동문의 역할이 됐다. 흥행 역시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제네시스 픽처스에서 제작을 맡은 첫 영화인 <마지막 늑대>가 흥행에 실패했다. 수 백억이 오가는 영화계에서 쉽게 오지 않는 2번째 기회를 받아 소방관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 <사이렌>을 제작했지만 이 역시 흥행하지 못했다.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당시 원 동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원 동문은 포기하지 않았다. “영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동업하던 친구와 헤어지고 2006년 제작사 리얼라이즈 픽처스를 세웠다. 그리고 만들어 낸 첫 작품이 608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한 <미녀는 괴로워>다. 그의 나이 43세였다.

**자신을 사랑하는
봄에 피지 않는 꽃**

지금 위치에 오기까지 성공가도를 달린 것만은 아니기에 원 동문이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은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43세에 첫 ‘성공작’을 내놓기까지 저는 ‘한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 동문은 끝까지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자신을 가장 지지해 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데 자기를 비

난하고, 못살게 구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깝습니다. 큰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화를 존중하고, 영화를 사랑하지만 영화가 제 인생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이런 마음가짐이 원 동문이 뛰어난 제작자가 되는 기반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봄에 피지 않았다는 사실로 무척 괴로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꽃이 봄에만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름과 가을, 겨울에도 꽃은 핀다. 제가 우연히 글 쓰는 능력이 있고, 작품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께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내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자유롭게 시도해 보세요.”

**흥행,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제작사 대표라는 위치에 있기에 투자자, 더불어 흥행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원 동문이지만 “이제는 상업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메시지를 담고 싶다”고 말한다.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솔직히 젊었을 적에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이 갑니다.”

그렇기에 지금 원 동문이 만드는 영화는 ‘메시지’가 강하다. 대표작인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는 ‘광대’ 역할을 내세워 애민 사상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를 이어 지금 준비 중인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도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다. “교조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2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 동문에게 영화 제작자로서 향후 목표를 물었다. “프랜차이즈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답이 돌아왔다. “<신과 함께>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은 작품을 외국의 <어벤저스>, <배트맨>처럼 시리즈물로 만들고 싶어요. 드라마의 경우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였지만 영화의 경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작품을 통해 한국 영화의 매력을 알리고 싶죠.” 이처럼 명확한 목표와 함께 제작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 ‘원동연’의 꿈은 명확하다. “마지막 꿈은 ‘웃긴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기에, 언제든 영화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발판으로 자신을 위한 더 큰 꿈을하고자 하는 원 동문은 오늘도 부담감을 덜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중이다.